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1호 【루계 제23183호】 주체99(2010)년 8월 19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조선로동당대표자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된 때로부터 50여일이 지났다. 온 나라가 크나큰 격동과 환희에 넘쳐 힘차게 전진해온 이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대고조진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철주야의 강행군은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는 원동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성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할 굳은 각오와 혁명적열의에 가득차 있습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과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이다. 이번에 소집되는 당대표자회는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시기마다 혁명적대고조의 폭풍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당대표자회가 있었던 1958년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공업총생산액을 전해에 비하여 140%로 장성시켰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뜨락또르와 굴착기, 화물자동차와 불도젤 등 수많은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농업부문에서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협동경리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기본건설분야에서 평양속도를 창조하며 비약의 폭풍을 일으킨것은 대고조의 성과로 당을 충직하게 받드는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된 삶을 안겨주고 운명과 미래를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기에 우리 인민은 1966년 10월의 당대표자회를 비롯한 중요한 력사적계기마다 천리마대고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며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천백배로 다지고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였다.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실성과 대고조의 위훈은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의 이러한 애국충정의 전통은 변함이 없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맞는 올해의 총공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으로 대고조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영웅적군민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새해 첫 전투부터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온 나라의 대경사를 련이어 안아왔다. 날로 가증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제재와 봉쇄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경공업부문에서 지표별생산량을 1.2배로 장성시키고 수력발전부문에서 매일 평균 수백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자랑을 떨쳤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폭풍이 휘몰아치고있는 속에 이룩된 대계도간석지건설완공과 같은 기적적인 성과들은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정으로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순결한 량심과 의리, 불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당을 받들자, 이것이 오늘 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충정의 열도이다.

머지않아 우리 인민은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대국건설사에서 빛나는 장이 아로새겨지게 될 뜻깊은 시각을 맞이하게 된다.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향도의 당,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는 어머니당의 당대표자회를 대고조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긍지는 없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대표자회에 더 많은 로력적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총공격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몸소 혁명적대고조진군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의 리상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현지지도강행군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대고조의 빛나는 성과로 맞이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결심, 조선의 결심이 어떤 위대한 실천을 낳는가 하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리 당이 구상하고 의도하는 모든것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우리는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선군천리마의 발구름높이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열혈충정의 혁명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애국의 열정과 순결한 량심의 인간, 민족자존의 기상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최첨단돌파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대고조투사이다.

우리는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과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무비의 담력과 배짱,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불멸의 기적을 련이어 창조함으로써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금 건설중에 있는 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기며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전당, 전국, 전민이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수도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주공전선이다. 모든 경공업공장들에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보다 큰 생산적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천과 신발, 식료품과 일용품들을 비롯한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쾅쾅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알곡증산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리며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과일생산기지들과 축산, 양어기지들이 커다란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김철을 비롯한 현지지도단위들이 앞장서나가야 한다.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온 나라를 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한 김철의 로동계급과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현지지도단위들이 앞장에서 나아가야 우리의 총진군속도가 빨라지고 어디서나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다.

김철과 성강을 비롯한 강철전선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인민경제선행부문의 전체 로동계급과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면서 인민생활대고조를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모든 현지지도단위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며 생산과 경영활동,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 현대화실현과 최첨단돌파 등 모든 면에서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선봉투사가 되여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당원들이다. 지금 우리 당은 수백만 당원들이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용맹한 결사대, 적극적인 선봉대, 능숙한 선동대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당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대고조진군의 선봉에 서서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헌신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드는 돌격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발양하는데서도 앞장에 서야 하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도 높은 실적을 올리는 위훈자, 혁신자가 되여야 한다. 당원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의 심장에 혁명의 불, 애국의 불을 달아주는 불씨가 될때 대고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될것이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승리의 근본열쇠는 일군들에게 쥐여져있다. 일군들은 대고조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세운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늘 머리를 쓰며 뛰고 또 뛰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과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확고한 혁명적원칙과 계급적원칙을 가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며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특히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인민소비품과 농업생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려 자기 단위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오늘의 총공격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온 나라를 앙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더욱 세차게 들끓게 하며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이 대고조진군에서 선봉투사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후방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대고조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모두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대고조의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선군의 위력 떨치며 총공격전에 더 큰 박차를!

힘있게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이 과정에 많은 단위들이 내세운 결의목표들을 실현하고 3대혁명붉은기, 2중 및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당조직들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혜산강철공장만 보더라도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공공장소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자료 1 500여점을 직관화, 카드화하여놓고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잘하고있다. 이 과정에 공장의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갈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공장의 종업원들속에서는 생산을 힘껏 내밀면서도 지성어린 원호물자들을 수많이 마련하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활짝 꽃펴났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중주파유도로를 설치운영하여 용해능력을 2배로 장성시켰으며 비콕스제철법에 의한 선철생산을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공장에 오신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단위라는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최근년간 공장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생산문화를 확립하고 후방시설건물을 번듯하게 꾸려놓았으며 염소와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종업원들의 후방공급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경공업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각지의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요한 결의목표로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 나날에 3대혁명붉은기쟁취단위들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강계식료공장만 보더라도 최근년간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술혁명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힘차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공장자체의 힘으로 물엿생산기지를 꾸리고 콩우유원심분리기를 제작설치하여 원료,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질좋은 식료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시안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되였다.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도 올해에 농업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방도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리는데서 찾고 이 운동을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온성군 읍협동농장 제4작업반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많은 협동농장 작업반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기 단위의 지대적특성에 맞는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농업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인 기상이 힘있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기술개건으로 생산장성의 확고한 전망을

황해남도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황해남도안의 여러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기술개건사업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단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술개건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청단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성형기계와 반죽기, 유탁기 등 6대의 과자생산설비를 제작완성하여 생산에 받아들이였다. 특히 장생산공정의 CNC화를 적극 다그침으로써 원료투입으로부터 곡자, 발효, 출하에 이르는 전공정에 콤퓨터에 의한 조종을 실현하였다.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남새와 콩가공공정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청단종이공장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생산능률을 높일수 있게 절단기를 개조한데 이어 세척 및 표백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침으로써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을 훨씬 개선하였다.

청단도자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원천을 찾아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게 한데 이어 동력을 절약하면서도 연소률을 높일수 있는 성형기와 알탄분쇄기를 만들어 적극 리용하고있다.

기술개건사업은 배천군의 기초식품생산단위들에서도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군민기초식품공장에서는 발효공정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치고있으며 배천영예군인식료공장에서는 술생산공정에 등압식자동열공급기를 설치하여 열효률을 높이였으며 무동력콩선별기를 만들어 질좋은 기초식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련이어 물엿과 사탕, 과자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인민위원회에서는 종이공장과 화학공장의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연안, 봉천군의 기초식품생산단위들에서도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생산설비들과 건물의 기술개건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연안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백㎡의 생산건물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면서 콩우유와 맥주생산을 위한 18대의 설비들을 새로 제작설치하고 생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시운전을 진행하고있다.

봉천식료공장 역시 생산건물을 새로 건설 및 보수하면서 과자, 막걸리생산을 위한 16대의 식료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설치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에서는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도안의 시, 군지방공업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과 함께 기술교류를 자주 조직하여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이룩된 혁신적성과

새로운 단백질먹이원천을 찾아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교원학자들이 축산과 양어에 리용할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먹이원천을 찾아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콩깨묵과 같은 단백질먹이만 있으면 축산과 양어에서도 전환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양농업대학의 교원학자들이 찾아낸 새로운 단백질먹이원천은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어느 한 나무의 열매이다. 이 나무는 심어서 6년이상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한다.

교원학자들은 지난 시기에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던 이 나무의 열매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단백질먹이로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그리고 그 가공처리방법을 확립하고 2년전부터 여러 단위들에서 도입시험을 진행하여 값비싼 배합먹이를 15~30% 절약할수 있게 함으로써 단백질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교원학자들이 해명한데 의하면 이 나무열매씨앗의 조단백질함량은 완두콩이나 보라콩보다 높으며 열매껍질에도 조단백질이 8%정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 열매는 영양성분이 풍부할뿐아니라 그것을 수집하는데 품이 많이 들지 않고 자연조건에서 건조시켜 보관하기도 쉬우므로 좋은 집짐승먹이원천으로 될수 있다.

교원학자들은 이 열매의 먹이가치를 해명한데 기초하여 그 소화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효법에 의한 가공처리방법도 확립하였다.

어느 한 농장에서 발효시킨 열매를 배합먹이에 섞어 오리와 돼지에게 먹여본데 의하면 압출팽화한것을 섞어먹였을 때에 비하여 증체률이 1.8%정도 더 높았다고 한다.

교원학자들은 가공처리한 열매를 집짐승과 물고기먹이로 리용할 때 배합먹이에 섞는 비률도 확정하였다.

평양농업대학의 교원학자들이 타산한데 의하면 이 나무를 많이 심으면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비경지를 리용하여 단백질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도 좋다고 한다.

이 나무를 한정보에 200그루만 심어도 1.4~6t의 열매를 얻을수 있으며 이것은 조단백질량으로 환산하면 콩 1~4.2t에 맞먹는 량이다. 그러므로 나무림을 10만정보 조성하면 10만t이상의 콩을 비경지에서 얻는것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 새로 찾아낸 단백질먹이원천을 잘 리용한다면 축산과 양어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단백질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크게 덕을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청진강재공장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8월 중순현재 년간계획을 105%로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충천한 기세로 어랑천2호발전소건설장과 유서깊은 회령시건설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더 많은 강재를 보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재를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다 잘 풀려나갈수 있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철강재생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가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장에서는 유도로에 앞선 용해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몇배로 끌어올린 성과와 경험을 살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유도로를 제작설치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벌려나가고있다. 또한 용접봉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질좋은 용접봉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리며 철강재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일터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생산공정간 련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이면서도 그 질을 높이고있다.

공장에서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로동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기 위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빛나는 고결한 한생

김보현선생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오늘은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보현선생님의 탄생 139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더불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숭고한 념원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김보현선생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과 한없는 그리움이 차넘친다.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 력사에 길이 빛날 고결한 한생을 수놓으신 김보현선생님,

그이께서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뜨거운 추억속에 김보현선생님의 영상을 그려볼수록 한가정만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위대한 혁명일가의 숭고한 가풍을 천대, 만대로 이어놓으신 열렬한 애국자의 고결한 생애가 뜨겁게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촌늙은이들이였지만 진정을 말하건대 나는 그분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에 탄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

자손분들모두를 혁명의 길에 떳떳이 내세우시고 그뒤를 꾸준히 받쳐주시였으며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평생의 락으로, 도리로 여기신 김보현선생님의 한생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칼을 든 원쑤들과는 칼로 맞서야 한다!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수 없다!

이것은 80여성상에 이르는 나날 김보현선생님께서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여오신 고귀한 지론이였다.

오늘도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선률이 은은히 울려퍼지는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앞에 서면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시며 사랑하는 자손분들을 혁명의 길로 서슴없이 떠나보내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그이께서도 남들처럼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을 곁에 두고싶으신 마음이 왜 없으셨으랴. 온 가정이 달라붙어 기를 쓰고 일하여도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던 그 세월 자손분들과 함께 있으면 그 덕을 보아 고생을 덜 하실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의 육친적권리마저도 혁명을 위해 바치시였다.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지원》의 사상은 그대로 김보현선생님의 뜻이였다.

선생님께서는 맏아드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숭실중학교에 다니실 때에는 공부를 끝마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할것을 바라시였고 감옥에서 나오신 후 몸이 미처 추서기도 전에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들을 복구할 결심을 하시였을 때에는 한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말고 어떻게 하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라고 힘과 고무를 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실 때에는 아버지가 령어의 몸이 되였으니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라고 하시며 어리신 손자분을 혁명의 길로 떠나보내신분도 김보현선생님이시였다.

그 누구보다 손자분을 더없이 사랑하신 할아버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불속에라도 주저없이 뛰여드실 할아버님이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보현선생님의 애정은 범속한 사랑이 아니였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뜨거운 정이였고 인자한 스승의 손길이였다.

이런 정과 사랑으로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에게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격침시키는 투쟁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신 김응우선생님에 대하여 늘 이야기하시면서 애국, 애족, 애민으로 빛나는 만경대혁명가문의 가풍을 심어주시였다.

한가정의 아버지, 할아버지이기전에 참다운 애국자이시였기에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 애국정신으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시였고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시며 꿋꿋이 살아오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일제의 앞잡이들이 김보현선생님께서 계시는 만경대고향집에 기여들어 돈뭉치를 내놓으며 온갖 감언리설로 회유하려고 한적이 있었다.

그때 원쑤들의 추악한 모습에서 격분을 참을수 없으시였던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이 천하에 고현놈들, 그래 우리 보고 제 손자의 목숨을 돈과 바꾸라는거냐, 그런 개수작질은 싹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가라고 불호령을 내리시였다.

일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지켜낸다는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때에도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아드님이신 김형록동지에게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지 않은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시며 맞아죽으면 맞아죽었지 절대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주체29(1940)년 봄 어느날 일제놈들이 만경대에 기여들어 마을사람들의 재물을 마구 략탈하고 부녀자들을 희롱할 때에도 선생님께서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시였다.

투쟁의 앞장에 서신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청년들과 함께 놈들을 붙잡아 나무에 꽁꽁 묶어놓으시고 반주검을 만들어놓으시였으며 왜놈들이 다시는 만경대에 기여들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한풍을 헤치며 항일혈전을 벌리시던 나날 할아버님을 비롯한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지조와 투쟁소식에서 크나큰 고무를 받으시였고 조국해방의 의지를 더욱 굳히시며 투쟁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가시였다고 뜨겁게 회고하군 하시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 그리운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이 서른살이 넘도록 효도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조선독립을 해냈으면 그게 효도지 그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는가고,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면 그게 효도라고 하신 김보현선생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정녕 김보현선생님의 자손분들을 위한 뒤받침은 순수 자식들을 위한 인정적이고 세속적인것이 아니라 만경대혁명가문의 애국, 애족, 애민의 가풍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헌신인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는 물론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이어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이르기까지 김보현선생님께서는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애국위업을 열렬히 받드는것을 자신의 둘도 없는 본분으로 여기시였다.

나라찾는 성스러운 싸움에 자제분들을 바치시고 손자분들을 내세우신 선생님께서는 해방후 편히 쉬시여도 되시련만 어느 하루도 쉬려고 하지 않으시였다.

이른새벽 일어나시여 거름을 모으시였고 뗄나무도 손수 해오시였다.

해방후 김구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탄복한것도 바로 그것이였다.

한 나라 국가수반의 조부이시였지만 그 어떤 대우도 바라지 않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시는 국사가 잘되기만을 바라시여 말년까지 수수한 평백성으로 농사일을 계속 하신 김보현선생님과 같으신 그런 위대한분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것처럼 자식들을 키워 고스란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갖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손들의 뒤를 꾸준히 받쳐준다는것이 어찌 한두번의 전투나 몇년간의 감옥살이에 비길수 있겠는가.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제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다는 진리를 뼈아프게 절감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열렬한 애국자의 거룩한 자욱을 찬란히 수놓으신 김보현선생님,

그이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김보현선생님의 한생은 위대한 혁명일가를 빛내이고 인간의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고귀한 생애인것으로 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경대혁명가문의 애국, 애족, 애민의 빛나는 가풍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활짝 열어제낄것이며 그 길에서 김보현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고귀한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울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찬비를 맞으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날 발전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동행한 일군이 그이께 우산을 펼쳐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류하시며 우산을 거두라고 엄하게 이르시였다.

이어 발전소전경을 바라볼수 있는 곳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비를 맞으며 그냥 서있는 모습을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전사들이 찬비때문에 감기라도 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빨리 들여보내라고 일군들을 재촉하시였다.

한 일군이 군인들에게로 달려가 병실로 들어갈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병실에 들어가기전에는 일을 볼수 없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어서 가서 그들이 병실에 들어가도록 잘 설복하라고 다시금 이르시였다.

군인들은 병실로 들어갔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찬비를 맞으시며 발전소를 돌아보시였다.

예비록음기에 깃든 사연

주체87(1998)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고 교양실에도 들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사상교양사업과 문화정서생활정형을 료해하시다가 록음기에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그러시고는 이곳 지휘관에게 록음기의 성능과 록음테프의 개수도 알아보시며 군인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지휘관은 군인들이 혁명적이며 정서적인 노래를 좋아한다는것과 록음기가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문화기재로 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병사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겠다고 하시며 록음기가 고장나면 그것을 수리할 기간에 대신 리용할수 있는 록음기를 예비로 더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병사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다심한 사랑어린 숭고한 화폭

10여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섬방어대를 현지시찰하시던 때의 일이다. 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수행하여온 일군들이 그곳 군인들과 근무를 교대하는 류다른 광경이 펼쳐지였다.

거기에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섬방어대로 떠나시기 전에 일군들에게 오늘 섬방어대에 가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가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념촬영시간에 동무들이 근무를 대신 서주면 모든 전사들이 다 사진을 찍을수 있을것이라고, 군관의 안해들과 부모들도 기념촬영에 참가시켜야 하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섬방어대초소들에서 일군들이 병사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수행하게 되였던것이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촬영장으로 가시던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가족들 전원이 참가하였다는 지휘관의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야 기념촬영자리에 들어서시였다.

정순학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악기공장에서— 신충혁 찍음

혁명전설

신비로운 전투

항일혁명투쟁사는 하늘이 낸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로 가득차있다. 그가운데는 장백현 반절구에서 있은 신비스러운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말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현대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습니다.》

장백현 반절구는 놈들의 요충지였다.

견고한 토성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마을에는 경찰대, 무장자위단이 주둔하고있었고 토성 네귀퉁이의 포대에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놈들이 밤낮으로 경비를 서고있었다.

더우기 놈들은 반절구에서 얼마 멀지 않은 14도구와 15도구가 유격대에 의해 되게 얻어맞는바람에 전에 없이 경비를 강화하고있었다.

반절구의 경비진은 말그대로 철통같았다.

교교한 달빛이 누리에 은은한 빛을 뿌려주던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반절구에 등지를 틀고있던 놈들은 이렇게 달이 밝은 날에 유격대가 습격해오겠는가고 하면서 모두 밖에 나와 달구경을 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적들의 심리상태를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에 반절구를 칠데 대한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명령을 받은 대원들은 벌판을 순식간에 지나 얼마후 성문주변에 다달았다.

그런데 달빛이 너무도 밝아서 성문으로 은밀히 접근할수가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모두 궁리를 짰으나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대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바재이며 원망속에 밝은 달을 바라보고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난데없이 밤하늘에 나타난 따오기 여덟마리가 달을 향해 날아오르더니 잠시후 밤하늘을 밝게 비치던 달이 가뭇없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위는 먹물을 뿌려놓은듯 캄캄해졌다.

유격대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선발대로 나간 대원들은 얼른 농민으로 변장하고 성문으로 다가가 밭에서 이제야 돌아온다고 법석 떠들었다.

그러자 보초놈은 시끄럽다는듯이 문을 열어주며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호령쳤다.

어느새 한 대원이 보초놈을 제꼈고 뒤따라 부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재빨리 성안으로 들어갔다.

물밀듯이 성안에 들어온 대원들은 어둠을 리용하여 성문포대와 적병실 등 각기 맡은 대상물들에 맹렬한 사격을 들이댔다.

방금까지 비치던 달빛이 사라지면서 난데없는 불벼락이 들씌워지자 하늘에서 그 무슨 큰 변이 일어난것이라고 생각한 놈들은 총 한방 쏘지 못한채 송장이 되고말았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사위는 다시 환해지기 시작하였다.

어디선가 여덟마리의 따오기들이 또다시 나타나더니 캄캄한 밤하늘에 둥근달이 떠올랐던것이다.

참으로 신비로운 천지조화였다.

밤하늘의 달도 옮겨놓으시며 적들을 한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변만화의 지략앞에서 일제놈들은 언제나 대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황명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의 것이라면

손종준

1941년 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소부대활동을 벌리던 때의 일이다.

김일동지가 지휘하는 우리 소부대성원은 모두 12명이였는데 3월 중순부터 약 50여일간을 얼마 안되는 수수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루 한사람앞에 두숟가락의 수수쌀이 차례졌을뿐이였다.

일제군경놈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감옥이나 다름없는 집단부락을 만들고 주변에 산재한 부락의 농민들을 여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우리 유격대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버리려 하였다.

일제강점의 말기에 이르러서 일제의 이러한 책동은 더욱더 악랄성을 띠게 되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보니 우리는 식량을 얻기가 매우 곤난하였다.

당시 우리 소부대의 기본임무는 적의 통치구역안에서 지하공작을 수행하는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놓고 적들을 습격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그리고 우리는 일정한 기간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공작하여야 했다.

우리들이 아껴먹던 수수쌀마저 다 떨어져버렸다. 어느날 몇명의 대원들은 김일동지의 지시에 의하여 식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거지를 떠났다. 그날은 음력 5월 4일 아침이였다. 좁은 골짜기를 밑에 두고 산릉선을 타고 내려가던 우리는 골짜기에서 가늘게 피여오르는 연기를 발견하였다. 우리는 나무가지들을 헤치며 연기나는쪽을 내려다보았다. 골짜기에는 7채의 집이 산재해있었다. 웃골짜기에 4채, 아래골짜기에 3채가 들어앉은 이 집들은 전부터 비여있는 집들이였는데 산아래턱에 바싹 붙어있는 한채의 집에서만은 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우리들은 서로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다.

《저 집에는 사람이 살고있으니 저 집사람들을 통해서 식량을 얻을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될수록 주간행동을 피하던 때였으므로 밤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해가 떨어지자 우리는 산을 내려 연기가 피여오르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웬일일가? 이 집 역시 텅 비여있었다.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건 물론이고 방에는 아무런 가장집물도 없었고 부엌에 역시 그릇 하나 없었다. 마당도 반반하였다. 역시 오래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이였다. 그러나 부엌아궁이에는 불을 땐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가까이 있을것만 같았다. 이 집 주인은 자기 집이 그리워 집단부락에서 빠져나왔을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 집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져앉았다. 그동안 풀잎따위로 요기를 해온 때여서 우리는 몹시 시장기를 느꼈다. 우리는 집주인을 좀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나는 주변을 더 살펴볼 생각으로 골짜기내가로 나갔다. 내가를 오르내리며 인적을 살피던 나는 주춤 서서 개울 건너편에 눈초리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름드리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는데 밑둥에서 한길쯤 올라가서는 세갈래로 가지를 뻗고있었다. 초생달빛은 그 갈라진 세 가지짬을 어렴풋이 비쳐주고있었다. 바로 거기에 둥그런 무엇이 얹혀있었다.

나는 곧 개울을 건너가서 나무우를 쳐다보았다. 세가닥 나무가지짬에 얹힌것은 석유통이였다. 석유통우에는 삿갓이 덮여있었다. 나는 나무앞으로 다가서서 삿갓을 들고 통속을 들여다보았다. 그속에는 흰쌀이 가득 들어있었다.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나는 곧 김일동지에게로 달려가서 사실을 보고한 후 두 동무를 데리고가서 그 쌀통을 날라왔다.

우리는 무척 배가 고팠다. 그렇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한 때이므로 그 쌀에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는 골짜기와 산등성이로 다니며 주인의 자취를 찾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끝끝내 주인을 찾을수 없게 된 우리는 심중하게 토의를 했다. 주인을 찾아낼수 없는 쌀을 그냥 처분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기다릴것인가를 론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공작을 위해서 우선 그 쌀로 밥을 지어먹기로 했다. 이날 저녁에 우리는 오래간만에 흰쌀밥을 먹었다. 그리고 근거지에 남은 동무들에게도 쌀을 보내였다.

그 이튿날 대원들이 공작을 나간 뒤 우리 몇몇은 이곳에 남아서 주민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다. 그들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였으나 종시 련계를 가질수 없었고 뜻하지 않게 웃골짜기에서 감자움 하나를 발견하였다. 상당히 큰 감자움이였다. 우리는 이 감자움에서 많은 감자를 파내여 근거지로 운반하였는데 그것은 우리 소부대의 식량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 소부대는 이미 3개월나마 곰의골근거지에 묵고있는터이였다. 얼마후 이곳에서 우리들의 공작임무는 끝났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되였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쌀과 감자값을 어떻게 갚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였다.

여러가지로 토의하던끝에 김일동지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때고 주인들은 집으로 올것이요. 그러니까 부락골짜기에 내려가있다가 그들을 만나게 되면 전후사정을 말하고 쌀과 감자값을 갚는것이 좋겠소.》

그래서 나와 몇동무들이 골짜기로 내려갔다. 꼬박 나흘을 기다렸으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김일동지에게로 가서 쌀과 감자값을 그것들이 있던 그 장소에 넣어두고 떠나가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일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며칠만 더 기다려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 골짜기주민들이 집단부락에 강제로 끌려간것이 틀림없소. 그러니까 이곳 주민들은 자기들이 살던 이 골짜기를 그리워할것이요. 그들은 놈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으로 찾아와서는 몰래 밭을 가꾸는것 같소. 수리날도 지났으니까 그들은 곧 올거요.》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자기 위치로 흩어져서 골짜기를 굽어보며 이제나저제나 하고 다시 사흘을 기다렸다. 그러나 주민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김일동지에게로 가서 의견을 제기했다.

《이레를 기다려도 주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쌀이나 감자가 있던 곳에 그 값을 넣어두고가는것이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서든지 쌀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일동지는 한참동안 생각하다가 아쉬운 어조로 말하였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쌀값과 감자값을 석유통과 감자움에 잘 넣어두고 골짜기를 떠났다.

김일동지는 그곳을 떠나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지 못한것을 그후에도 두고두고 말하였다.

이렇듯 어떠한 간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인민의 생명재산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대로 행동하였다.

백두의 붉은기정신을 심어주시여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우리 인민이 백두의 붉은기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간고했던 항일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의 신념, 억년 드놀지 않는 붉은기정신을 심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 투쟁과 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력사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입니다.》

주체29(1940)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숙영할 때였다.

숙영지를 돌아보시고 밤늦게 천막에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대원에게 수집한 신문들을 가져오라고 하시였다.

신문을 받으신 그이께서는 함께 보자고 하시며 천막에 있던 대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여러명의 대원들이 신문에 실린 소식들이 궁금하여 그이의 곁에 모여앉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느때처럼 그들에게 신문에 실린 정세소식들과 적들의 책동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비겁분자, 변절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고 하시면서 적의 《위공작전》에 겁을 먹고 투항한 림수산이 감히 우리를 《토벌》하겠다고 나섰다고, 왜놈의 사냥개가 되고말았다고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은 격분에 치를 떨며 그이께서 보시던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일제의 개로 전락된 림수산의 떠벌임을 적은 글과 변절자의 더러운 몰골을 찍은 사진까지 나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혁명이 이렇소, 저렇소 하면서 우쭐대던자가 동지들을 배신하고 원쑤들의 개로 전락되였으니 얼마나 역겹고 가증스러운가, 혁명은 준엄하고 공정한 심판관이라고 하시면서 문제는 림수산의 변절에서 교훈을 찾고 혁명의 길을 더욱 억세게 걸어나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림수산의 변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게 되는가라고 하시며 한 대원에게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그 대원이 의분을 금치 못해하며 비겁분자는 어렵고 힘든때에 변절할수 있기때문에 이런 놈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비겁성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자고자대하면서 자기를 수양하지 않은데서 생긴것이며 신념이 강하지 못해서 생긴것이다, 림가는 지위가 높아지자 교만해져서 동지들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면서 사리와 공명을 추구하였으며 안일부화한 생활에 물젖어 혁명가의 량심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에 겁을 먹게 되였으며 끝내는 혁명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적기가》에도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세가 곤난하고 싸움이 어려워질수록 비겁한자들은 동요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파속에서도 동요없이 조선혁명의 붉은기를 지켜낼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자!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끝까지 원쑤를 치자!

이것이 내가 오늘 동무들에게 하고싶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맹세를 영원히 잊지 맙시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대원들은 우리들은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절대로 림수산이처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그들을 품에 꼭 껴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동무들을 믿는다고 하시며 근엄하신 음성으로 조용히 《적기가》를 부르시였다. 대원들도 눈물을 머금고 심장으로 《적기가》를 따라불렀다.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들에게 심어주신 붉은기정신은 그 잊지 못할 숙영지에서 엄숙히 울리던 《적기가》에 실려 오늘도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세차게 높뛰고있다.

림혜선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경공업혁명의 불길높이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대동강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대동강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식료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들은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안고 자기들의 일터를 인민의 사랑받는 공장으로 영원히 빛내여가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주인다운 일본새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공장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주인다운 일본새를 높이 발휘하는데 질제고의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기사장 최현실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질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를 자각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제고에 이바지해나가고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설비에 정통하고 능숙하게 다루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작업반장 안정식동무와 오현철, 윤성일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기발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면서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앞장에 섰다. 그들은 제품질제고의 높은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술혁신종자를 찾아쥐고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에 합리적인 장치를 도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질제고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누구나 머리를 쓰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어떤 어려운 기술혁신과제도 제힘으로 해낼수 있다고 뜨겁게 호소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고있다.

실장 김창룡동무와 최은별동무를 비롯한 실험실기술집단이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제품질제고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현장에 내려가 선진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한 합리적인 미생물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제품의 질을 부쩍 높일수 있게 하였다.

기술혁신투쟁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는 공장의 기술혁신성과속에는 공무작업반원들의 노력도 깃들어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기술혁신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애써 투쟁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한몫단단히 하고있다.

원료처리작업반, 발효작업반원들은 기술학습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함으로써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나가고있다. 이곳 작업반원들의 평균기술기능급수는 훨씬 높아져 누구나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능수가 되고있다.

당의 은정이 수도시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는 가공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제품의 질보장이 좌우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고있다. 그들은 합리적인 물검사체계를 세우고 물정제공정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높여 현대적인 설비들이 은을 내도록 애써 노력하고있다.

오늘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에 대한 수도시민들의 평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보다 높은 투쟁목표를 내걸고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새 제품개발에 적극 떨쳐나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생필분공장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생필분공장은 부엌세간과 가정용공구를 비롯한 철제일용품생산을 잘하는 단위이다.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분공장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제품개발에 적극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분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인민들에게 차례질 일용품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생산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관철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같은 마음을 엿볼수 있었다.

우리가 지배인 남승도동무의 방을 찾았을 때였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공장에서 새롭게 개발한 제품견본들을 볼수 있었다. 가정주부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부엌세간들과 세대주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가정용공구들을 비롯하여 그 하나하나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제품들이였다.

우리가 개개의 견본들에 대해 제나름으로 평가를 하고있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녀성로동자가 들어서는것이였다.

지배인은 사업수첩을 펼치고 무엇인가를 적더니 새로운 볶음판시제품을 들고온 녀성로동자와 부엌세간들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녀성로동자가 방을 나서자 이번에는 주물직장 로동자 정의남동무가 들어섰다.

《전번에 토론한대로 주름무늬조형을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끝날줄 몰랐다. 얼마후 지배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이 응당 앞장에 서야 한다는것은 분공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였다. 종업원들의 이러한 열의에 맞게 분공장의 일군들은 당조직과의 합의밑에 일용품의 가지수를 지난시기의 2배이상으로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창건 65돐전으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기어이 완수할데 대한 목표를 제기하였다.

그 관철을 위해 조명혁동무는 수십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기어이 고온가열착색방법을 성공시켰고 김영란동무는 밤낮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기술개건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고 한다.

소재직장과 압연, 주물직장, 가공작업반의 생산자들속에서 새 제품개발과 그 질보장을 놓고 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이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시제품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문제를 토론하자고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오는것이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갈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이런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합쳐져 인민소비품생산에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는것이였다.

우리는 분공장의 생산자들이 높이 세운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게 되리라고 확신하였다.

백산해

가볍고 맵시있는 신발을

함흥신발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의 질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함흥신발공장을 찾았다.

우리를 맞이한 공장의 일군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면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면서 우리를 어느 한곳으로 안내하였다. 거기에는 운동화, 편리화, 고무장화를 비롯하여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신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하나하나의 신발들이 다 형태가 새롭고 색갈이 고운것으로 하여 대번에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공장의 일군은 그 신발들을 들어보이며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인 결과 신발의 질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기술혁신안들이 다름아닌 공장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창안한것이라고, 우리의 원료로 신발창을 가볍게 하면서도 그 강도를 높이고 신발테두리의 색갈도 개선하였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실험실장 장일건동무와 함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기술혁신투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을수 있었다.

로동자, 기술자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질좋은 신발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여러 기술공정을 새롭게 꾸려놓던 과정, 날로 높아가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오던 과정은 결코 무심히 흘러간 날과 달들이 아니였다.

오늘도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신발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김충성

일터에 넘치는 자랑

방문기

◎신의주화장품공장 화장품직장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세계적수준에서 질적으로 생산하면 사람들이 남의것을 넘겨다보지 않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랑할것이며 우리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자존심이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신의주화장품공장 화장품직장은 온 나라 녀성들이 관심을 모으고있는 자랑많은 단위이다.

얼마전 우리는 《봄향기》화장품생산자들의 자랑넘친 일터를 찾았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면 첫눈에 안겨오는 아담한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화장품직장이 꾸려져있었다.

우리를 맞이한 직장장 김상옥동무는 최근 몇해사이에 화장품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 화장품의 질이 더욱 높아졌다고 자랑담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하얀 위생복차림을 한 기대공들이 현대화된 원료배합실과 무균화된 주입포장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기대운전을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높은 기술기능수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드넓은 완성작업현장의 현대화된 크림흐름선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상병기와 주입기 등 수많은 설비들이 하나의 흐름선상에서 기세좋게 가동하고있는 모습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매 생산공정들에서 주의깊게 설비를 다루며 일손을 놀리는 완성작업반원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덥고 자랑스러웠다.

어느새 현장에는 살결물, 분크림, 물크림 등 화장품들이 차례차례 포장용기에 담겨 무드기 쌓였다.

《우리 직장종업원들은 자나깨나 화장품의 질을 더 높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습니다.》

직장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을 안고 산다는 강영옥, 백성희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종업원들, 공장을 다녀가신 후에도 여러차례 《봄향기》화장품을 보아주시고 질이 높다고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혁신의 한길로 질풍같이 달려온 이들이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과학연구기관의 연구사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봄향기》화장품의 질을 더욱 높여 우리 인민들속에 우리것이 제일이라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게 하였다.

우리는 직장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 비낀 열정의 모습에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만만한 자신심을 읽으며 일터를 떠났다.

박유정

당대표자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리원방직공장에서— 김진명 찍음

대계도간석지에 새겨진 로동당시대의 영웅서사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투쟁(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선군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미래관과 높은 창조정신이 깃들게 만년대계로 하여야 합니다.》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 대계도간석지!

그 어떤 파도나 해일에도 끄떡없이 날바다 한복판으로 성벽마냥 뻗어간 수십리 방조제, 간석지벌의 풍작을 담보하는 물길들과 내부망중간제방…

한가슴에 안기에는 너무도 가슴벅찬 광경이다.

그 견고성에 있어서, 기술적요구의 실현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만년대계의 대계도간석지는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이다.

만난시련을 이겨내야 했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박차고 서해갑문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조선로동계급의 억센 신념과 불굴의 기상을 긍지높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썰물과 밀물만이 엇바뀌던 우리 나라 서해안지대를 로동당시대 인간들의 의지와 리상대로 황금나락이 물결치는 옥토로 전변시킨 이 위대한 현실은 조선은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한 일대 사변이다. …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돌아보시며 너무도 기쁘시여 우리 장군님께서 하신 이 말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광란하는 파도와 싸우며 수십리 방조제를 만년대계로 완공한 간석지건설자들의 가슴에 바위처럼 억세게 들어앉은것이 바로 이 신념이였다.

3호방조제마감막이로 물막이는 끝났으나 작업전선은 더 넓어졌으며 수행해야 할 공사량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3호방조제마감막이구간의 지수공사를 할 때였다. 기존방식대로 해가지고서는 공사속도를 보장할수 없었다.

이때 련합기업소의 기술일군이 감탕속채움에 의한 방법으로 지수공사를 할 대담한 발기를 하였다. 방조제안쪽에 보조제방을 쌓고 그 공간에 점성이 강한 바다밑감탕을 파서 채우자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흙을 채우는 방법으로 지수공사를 할 때보다 자재와 로력을 줄여 공사속도를 보장하는데도 좋고 또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도 유리하였다.

다사기계화사업소 해상굴착기와 선박사업소의 끌배들이 지수공사에 총동원되였다. 교대가 따로없이 감탕퍼내기작업을 하는 해상굴착기운전공들의 선두에는 언제나 다사기계화사업소 지배인 김성옥동무가 서있었다. 방조제완성을 위한 공사에서도 기계화초병들이 제1번수의 위치를 고수하자는 지배인의 절절한 호소와 이신작칙은 모두의 심장속에 불을 지펴주었다.

방조제완성공사와 함께 내부망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천수백m의 내부망중간제방을 한쪽에서는 다사기계화사업소의 해상굴착기소대원들이, 반대쪽에서는 석화, 로하, 보산 등 여러 간석지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이 쌓아나갔다.

해상굴착기소대원들이 쇠바줄에 꿴 집채같은 돌을 굴착기팔로 허궁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언땅을 까면서 한치한치 전진할 때 반대켠 제방공사장에서는 전투원들이 얼음물에 발이 젖는것도 아랑곳없이 맞들이에 흙을 가득 담아들고 달렸다.

참으로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모습이였다. 오늘은 힘겨워도 래일에는 여기 간석지땅에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물결치리라는 미래에 대한 열렬한 확신, 그날을 자기들의 피땀으로 마련해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건설자들은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내부망제방공사장들이 법석 끓어번졌다. 10여km를 에돌것이 아니라 얼음판우로 돌을 실어나르자는 대담한 발기에 따라 시작된 돌운반전투는 장관이였다. 낮이면 얼음판우로 끊임없이 이어진 륜전기재들의 행렬이 내부망중간제방공사장에 이채로운 광경을 펼쳤고 밤이면 곳곳에서 타오른 홰불이 뜨락또르들의 앞길을 밝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간석지건설자들의 투쟁을 지켜보신다!

찾아오실 때마다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절불굴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방조제완성공사와 내부망공사를 동시에 내미는 힘겨운 전투가 한창일 때에는 제기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시며 간석지건설자들을 끝없이 고무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은 컸지만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마음속이야기를 나누며 불사조와 같이 억세게 일떠섰다. 건설자들은 세찬 파도와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에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방조제우에 설치한 천막에서 쪽잠을 자면서 치렬한 결전을 벌리였다. 막돌을 실어나를 자동차의 기관들이 혹한으로 멎게 되였을 때 운전사들은 연유통에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30만산, 10만산 등 끊임없는 발파로 막돌생산을 앞세운 채석장전투원들의 기세는 또 얼마나 드높았던가.

세찬 파도가 길길이 솟구쳐오르는 방조제우에서 건설자들은 한달이상 걸려야 한다던 마감막이구간의 앞방파부콩크리트치기를 단 5일동안에 끝내고 장석공사기일을 열흘로부터 이틀로 단축한것을 비롯하여 기성관례를 초월하는 눈부신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바람세찬 대계도간석지를 또다시 찾으신 지난해 여름 승리의 날을 약속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집단적혁신과 영웅적투쟁으로 실천해가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간석지완공의 시간표는 날마다 앞당겨졌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시간을 앞당기고 세월을 주름잡으며 기적에 기적을 련이어 탄생시킨 그 영웅적투쟁과 위훈담들을 여기에 다 펼칠수는 없다.

명백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지니였기에 그들은 인간이 발휘할수 있는 최대의 정신력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는것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석의 신념, 이것이 영웅적위훈창조의 밑뿌리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2호방조제가 시작되는 가차도에 이런 구호가 나붙어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바로 이 구호에 대계도간석지방조제를 만년대계로 완성한 련합기업소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가 비껴있다.

최영덕, 서원길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은 간석지건설지도국 간석지설계연구소의 기술집단과 합심하여 백년이 아니라 천년이 가도 끄떡없을 우리 식의 새로운 간석지방조제설계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조국의 재부를 늘이는 간석지방조제를 만년대계로, 이것이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간석지건설자들의 드놀지 않는 신념이였고 량심이였다.

그 신념, 그 량심에 떠받들려 큰돌투석에 의한 방조제앞면보강공법, 마감막이구간의 지수공법 등 방조제를 만년대계로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법들이 창안도입되였다.

0.5~1t씩 나가는 큰돌들을 운반하여 방조제앞면 아래부분에 쌓아 파도의 세기를 절반이상 줄이는 방법으로 크고작은 해일을 막을수 있게 하는 보근사석공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한m의 보근사석공사를 하여도, 한㎡의 장석공사를 하여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 하나의 마음을 안고 간석지건설자들은 방조제완성공사에서 불타는 애국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올해 초봄 어느날 련합기업소 책임일군은 마감막이구간의 어느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점심시간인지라 조용한 방조제우에서 두명의 청년들이 안쪽의 10m 남짓한 장석구간을 허물고있었다. 왜 허무는가 묻는 일군에게 애어린 간석지건설자는 대답하였다. 한해전에 자기 손으로 처음 쌓은 구간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돌쌓는 기술이 미숙했던것이 가슴에 걸려 다시 손을 댔다고…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 말없이 두손을 꼭 잡아주고나서 두팔걷고 도와주는 일군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 청년의 이야기,

《천년이 아니라 만년이 가도 끄떡없다고 떳떳이 보증할수 있게 이 창조물에 나의 량심을 묻고싶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한 청년의 심정만이랴. 창조물에 티가 있으면 일생에 영원한 허물로 남는다면서 로반장석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친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의 새 세대 청년들, 콩크리트혼합물에 혹시 자그마한 검불이라도 섞이지 않을가 걱정되여 타입작업에 앞서 몇번이고 검사하군 하였다는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의 청년돌격대원들…

그들이 순간마다 자기앞에 세워보던 량심, 그것은 자기들이 일떠세우는 창조물의 만년미래까지도 조국앞에 그리고 후대들앞에 떳떳이 담보할수 있게 한 보증의 기초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바로 이런 드팀없는 신념, 이런 숭고한 인생관을 지녔기에 평안북도간석지건설자들은 수십리 방조제를 만년대계로 훌륭히 완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릴수 있었던것이다.

얼마전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자, 영웅들만이 해낼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간석지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최상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그리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는 김일성훈장을,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는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결사관철의 공격정신으로 물불을 맞받아 돌진해나가는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가 될 때 수십리 날바다도 길들이는 위대한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간석지건설자들은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보여주었다.

선군조선의 또 하나의 만년재부로 우뚝 솟은 대계도간석지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국토건설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이고 조국번영의 터전을 마련한 간석지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과 빛나는 위훈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선군조선의 또 하나의 만년재부로 일떠선 대계도간석지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힘차게 날리는 소년단야영기

창립 50돐을 맞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동해의 명승지에 자리잡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야영기가 힘차게 날리고있다.

어언 반세기가 되는 50년세월 변함없이 휘날린 소년단야영기이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한껏 기폭을 펴덕이며 학생소년들의 아름다운 꿈을 소중히 지켜준 야영기를 우러를수록 우리의 가슴에 이름할수 없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시절에 야영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야영생활을 통하여 몸을 단련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할뿐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큰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라마다 학생소년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야영생활이 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소나무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다바람에 야영생들의 노래소리가 실려왔다.

아버지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의 가사내용이 천만가지 사연을 새겨주며 우리의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행복에 겨워 부르는 야영생들의 노래소리는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듯 하였다.

50여년전의 그날 원산시 건설방향을 료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송도원의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중요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송도원의 제일 좋은 자리에는 아이들의 야영소를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친히 야영소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17일 창립과 더불어 첫 야영기가 올랐던 그 다음해에는 몸소 현지를 찾으시여 송도원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야영소를 지은것은 잘한 일이라고, 제일 좋은것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침대의 크기며 식사차림표까지 헤아려주시면서 야영생활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에도 야영소를 또다시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야영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풀어주시였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은덕은 정녕 끝이 없었다.

우리의 깊은 생각을 깨며 야영기의 퍼덕임소리는 바다바람을 타고 세차게 울려왔다.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과 더불어 매해 오르군 하는 야영기이지만 50년세월 쉽게만 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때에도 우리의 야영기는 언제 한번 오르지 못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기세차게 올라 힘차게 휘날리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야영기를 지켜주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이 경치좋은 송도원에서 야영생활을 즐기고싶어하는 심정을 헤아리시여 그 능력을 2배로 확장하도록 하시고 새로 건설하는 야영각들은 누구나 와보면 조선의 미래가 양양하다는 표상이 가게 현대적으로 잘 지어주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송도원에는 34만㎡의 부지면적에 연건평 4만㎡의 새로운 야영소가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야영소의 이름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고쳐주시였다.

야영생들은 새로 일떠선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과 소년단실 그리고 등산지식보급실, 해양지식보급실, 국제친선소년회관, 겨울이나 비오는 날에도 리용할수 있는 실내수영관, 여러동의 야영각, 식당, 상점, 리발소, 미용실 등에서 즐겁고 보람찬 야영생활을 마음껏 즐기고있다.

주체82(1993)년 3월 30일 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야영소가 명당자리에 만점짜리로 건설되였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면서 이 야영소는 자신께서 학생소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분에 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참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동해명승의 진주마냥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학생소년들의 사랑의 요람으로 되고있다.

학생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야영생활을 즐기는 탄자니아에서 온 지도교원은 말하였다.

《이처럼 훌륭한 야영소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야영생활을 하는 이 행복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조선의 학생소년들이 즐겨부르는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구절의 참뜻을 우리는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온 세상 학생소년들의 사랑의 집

야영소에는 매일 어김없이 보게 되는 이채로운 풍경이 있다.

동해의 수평선에 붉은 노을이 곱게 피는 새벽이면 우리 나라 야영생들과 외국의 야영생들이 모두 떨쳐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을 정성다해 관리한다.

야영소일군의 말에 의하면 그 누가 시킨 사람은 없어도 모두 떨쳐나서는데 매일 그 인원수가 늘어 이제는 발들여놓을 자리가 없게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 하나의 풍경은 하루일과가 끝나는 저녁시간에 펼쳐진다.

불타는 저녁노을속에 아버지대원수님 동상앞에서 저저마다 사진을 찍는 외국야영생들의 모습이다.

로씨야에서 온 알리나라고 부르는 애어린 소녀는 우리에게 **《김일성대원수님 동상이 모셔진 훌륭한 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즐긴 자랑을 조국의 친한 동무들에게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정다해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외국의 학생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스스로의 생활일과를 만들어놓은것이 아니랴.

우리는 외국야영생들의 이러한 심정을 국제친선소년회관홀에서도 뜨겁게 느끼였다.

외국의 야영생들은 자기들의 키보다도 곱절이나 큰 지구의 주위에 빙 둘러서서 웃고 떠들며 소리를 치고있었다.

우리 나라와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이 온 고장을 서로서로 찾아 짚어가며 좋아라 떠들어대는 중국, 로씨야, 탄자니아의 야영생들,

그들은 피부색갈과 언어는 서로 달라도 마음은 하나로 통하여 저저마다 형제가 된듯싶었다.

무심히 볼수 없는 광경이였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리용하시던 이 지구의를 야영소에 보내주신것이 아니랴.

아이들의 기쁨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인간미가 뜨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였다.

우리는 야영생들의 응원소리가 높이 울리는 솔밭에도 들려보았다.

여기서는 천막치기경기가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나라별로 야영생들이 승부를 다투는 이 경기는 정말 볼만 하였다.

남녀야영생들이 서로 어울려 천막을 치는 솜씨는 누구라없이 대단하였다. 손동작, 몸동작들이 얼마나 능숙하고 날랜지 불과 몇분사이에 천막은 미끈하게 완성되였다.

우리는 야영생들의 등산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막도 야영소에 보내주신 그 은정을 다시한번 심장속에 새겨보았다.

천막치기경기를 끝낸 야영생들이 수영장으로 향하였다.

푸르청청한 솔숲을 치마처럼 두른 하얀 백사장, 백사장을 곱게 단장한 해당화꽃밭은 볼수록 한폭의 그림마냥 아름다왔다.

《와—》 어느새 야영생들은 서로 찾고 부르며 맑고 푸른 바다에 뛰여들었다.

여러가지 고운 색갈의 수영복을 입은 야영생들과 하늘로 날아오르는 구명대는 아름다운 꽃물결이 바다로 쏟아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우리에게는 마치도 동해의 드넓은 바다가 야영생들을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며 넓은 한품에 안아주는것만 같았다. 아니 위대한 어버이사랑의 품이 야영생들을 한껏 얼싸안고 있었다.

8월의 맑고 푸른 하늘높이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있었다.

어느새 야영소의 창문마다에 저녁노을이 곱게 비끼였다.

야영생들은 줄을 지어 국제친선소년회관으로 모여들었다.

회관에서는 조선학생소년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는 조선의 날이 운영되였다.

아버지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길이 받들어갈 드팀없는 맹세가 담긴 노래와 춤이 펼쳐졌다.

민족적색채가 짙은 공연종목들이 바뀌고 나어린 태권도선수들의 놀라운 특기동작들이 펼쳐질 때마다 외국의 야영생들은 환성을 지르며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였다.

공연이 고조를 이루어갈 때 야영생인 금성제1중학교 나어린 손풍금수 김성원학생이 무대에 나섰다.

수재로 널리 소문난 그는 손풍금을 연주하며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직접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절절하게 울려퍼지는 그의 노래는 나어린 소년의 노래이기 전에 온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펼쳐주신 아버지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찬가였다.

모든 야영생들이 격정에 넘쳐 합창하였다.

그들의 합창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어찌하여 외국의 야영생들이 저저마다 짬만 있으면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그토록 열심히 배우고있는지 그 참뜻이 리해되였다.

국제친선소년회관문을 나서는 야영생들의 머리우에 밝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있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이 하루는 야영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한순간을 깊이 새겨주고있었다.

온 세상 학생소년들의 사랑의 집은 이 저녁과 함께, 야영생들과 함께 한껏 웃고있었다.

글 본사기자 함원식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영화상영순간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경축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였다.

이 기간 각지에서는 기록영화들인 《어버이수령님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계시여》, 《위대한 계승》,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련속편) 등과 《해빛 밝아라》(제1부), 《백옥》(제1, 2부), 《병사의 모습》, 《훈련의 하루》, 《군관의 안해들》을 비롯한 예술영화들을 상영하게 된다.

개막식이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홍광순 국가영화위원회 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기남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부강조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관람자들은 상영되는 영화들을 통하여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절감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참답게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기록영화 《선군혁명령도로 위대한 전환을 마련하시여》가 상영되였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였다.

인민무력부에서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영화감상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18일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무관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켜주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우리 나라 기록영화 《선군혁명령도로 위대한 전환을 마련하시여》를 감상하였다.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 참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18일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인 선군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전시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웬 딩 즈엉 월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참사는 감상록에 참관을 통하여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이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조선동지들이 사회주의조국보위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썼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기자회견 진행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가 체류일정을 마치고 남측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출판보도부문 기자들과 외국특파기자들이 참가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목사가 발언하였다.

그는 6.15를 살리기 위해 화해와 평화통일의 사절로 북녘땅에 와서 많은 곳을 돌아보았다고 하면서 체류기간에 받은 소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기간 40여차례 북녘을 방문하였지만 이번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동포들을 만나고 현실을 깊이 리해한적은 없었다.

가는 곳마다에서 나는 과분한 환대를 받았다.

6.15정신에 비추어보면 나의 행동이 당연하고도 작은 일인데도 북녘동포들은 엄청나게 환영해주었다.

나는 뜨거운 동포애를 느꼈으며 정성과 헌신을 다한다는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였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그들의 절절한 눈빛을 결코 잊을수 없다.

북녘동포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이 지닌 정신세계를 더 잘 알게 되였으며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원하고있음을 깨닫게 되였다.

계속하여 그는 남조선당국자가 외세의존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버리고 6.15정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결단을 내릴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 사는 동포들이 자기에게 뜨거운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이국땅에서 애국애족의 마음을 지니고 민족의 지조를 지켜오고있는 해외동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가 우리 민족끼리의 한길로 나아가자고 말하였다.

그는 며칠후 판문점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북녘땅에 올 때처럼 나는 문익환목사의 두루마기를 입고 통일기를 두르고 갈것이다.

한걸음 걷고 한번 절드리고 한걸음 걷고 하나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 평화 만세!》를 부르며 전진할것이다.

이어 한상렬목사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민주조선사, 총련 조선신보사, 중국 신화통신사,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총련교육일군대표단 도착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 류창순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꽁고대통령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접견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데니 싸쑤 느게쏘 꽁고공화국 대통령이 11일 리명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데니 싸쑤 느게쏘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꽁고독립 5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기술자들이 독립탑을 훌륭히 건립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독자의 편지

《고마운 내 조국을 노래합니다》

저는 특류영예군인입니다.

이렇게 펜을 든것은 평범한 한 영예군인을 위해 진정을 바치는 신의주시학생도서관 사서 로숙희동무를 널리 소개하고싶어서입니다.

제가 로숙희동무를 알게 된것은 4년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명절날, 휴식날에는 물론 수시로 저의 집을 찾아와 성의껏 마련한 갖가지 영양식품들과 보약들을 안겨주며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였습니다. 그는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자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 나온 도서들을 가지고와서 읽어도 주고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가정부인의 몸으로 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그 진정에 저와 안해는 뜨거운것을 삼키군 하였습니다. 그 나날 저의 건강과 생활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고있는 저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로숙희동무와 같은 참된 인간들을 키워준 고마운 내 조국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군 합니다.

신의주시 방직동 21인민반
리 정 수

수도의 이채로운 새 풍경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에서

요즈음 수도의 어느 구역에서나 자전거이동매대의 이채로운 풍경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무더운 여름철에 수도시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 일군들이 바친 헌신적인 노력이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생활상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원칙에서 봉사조직과 봉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십년전에 벌써 여름철에 수도의 거리를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청량음료를 봉사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름철에 사람들이 모인 곳, 래왕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에스키모를 비롯한 청량음료를 봉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수도의 식료품매대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료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수도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미치게 하겠는가.)

국장을 비롯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래왕이 많은 곳에 자전거이동매대에 의한 청량음료봉사활동을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평양시당위원회와 상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적극 밀어주었다.

자전거이동매대에 의한 청량음료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영일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아래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전투를 벌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봉사자의 삶과 영예를 빛내이자.

그들은 이런 지향을 안고 자체의 힘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관리국에서는 구역마다 자전거이동매대작업반을 조직하는것과 함께 그 운영과 위생성보장, 판매원들의 옷차림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강습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되여 평양시의 모든 구역에서는 자전거이동매대에 의한 청량음료봉사가 시작되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 일군들은 수도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힘을 넣었다.

자전거이동매대에 의한 봉사와 함께 시안의 곳곳에서 약수와 빙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청량음료봉사를 더 잘하기 위하여 일군들은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수도의 거리마다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

이것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생리로 되고있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펼친 또 하나의 흐뭇한 풍경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로주봉

건축설계작품전시회 진행

【함흥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건축설계작품전시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함흥에서 진행되였다.

평양과 각 도, 시, 군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 과학, 교육부문 등의 근로자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최근 5.21건축축전에서 평가받은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160여건의 건축설계작품들이 출품된 전시회에서는 함흥화학공업대학 전자도서관, 실내축구경기관, 마전유원지형성설계 등 많은 작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시품들은 건설분야에서 도입전망이 큰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당의 령도밑에 날로 발전하는 건축설계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 전시회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 과학, 교육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웰남친선협회와 웰남조선친선협회결성 45돐

기념집회 및 친선모임 진행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웰남친선협회와 웰남조선친선협회결성 45돐기념집회가 18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웰남기발이 세워져있었다.

집회에는 레 반 끄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웰남친선협회 위원장인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친선협회성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전영진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지난 45년간 친선협회들이 래왕과 협조를 강화하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호지명주석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농 득 마잉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여러 분야에 걸쳐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친선협회들이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리라는것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레 반 끄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두 나라 인민들이 어깨겯고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7년 평양에서 진행된 존경하는 농 득 마잉동지와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동지사이의 력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당과 정부, 인민이 지난 시기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 지지성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웰남당과 정부, 인민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웰남당과 정부, 인민은 조선당과 정부, 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조선웰남친선 경상유치원에서 친선모임이 있었다.

모임참가자들은 유치원의 여러 교육교양시설들을 돌아본 다음 어린이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았으며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남녘땅에 전해지는 위인칭송의 전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다 바치시고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서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이를 한없이 경모하는 남녘겨레의 마음은 그들속에서 전해지는 전설들에도 그대로 어리여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이 낸 전설적위인으로 칭송하며 널리 전하고있는 이야기에는 백두산장군별전설도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던 시기 어느 봄날, 태백산기슭의 천년 묵은 고목에 꽃이 피고 지리산의 목련꽃에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들고 북악산이 그윽한 향기를 뿜었다. 어느 길손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하늘을 쳐다보니 북쪽하늘높이 백두산이 보이고 그우에 유난히도 밝은 큰별이 떠있었다. 그 큰별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떠올리신 장군별이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뭇장수들을 거느리시고 일본군대를 삼대베듯 쓸어눕히시였으며 왜놈의 군화에 짓밟혀 신음하는 삼천리조국강산에 재생의 서광을 뿌려주시였다. …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이러한 내용의 백두산장군별전설이 날로 보충되고 더욱 풍만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민족재생의 위대한 은인에 대한 우리 민중의 소박한 례찬과 다함없는 존경심이 어려있는 백두산장군별전설은 산간마을의 깊은 밤 신비한 옛말속에도 나오고 호남의 들판에 들리면 봄날의 꽃향기가 되여 가슴들먹이게 하며 섬마을을 찾으면 전설속의 바다밑보석처럼 빛을 뿌리며 전해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부산의 한 로인은 《김일성장군님은 백두산정기를 타고나신 천하명장이시다. 왜놈들이 제아무리 기승을 부렸어도 장군님의 전법과 령군술앞에서는 쪽을 못썼다. 김일성장군님은 천지조화를 다하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다.》라고 하였으며 서울의 한 종교인은 《김일성장군님은 신출귀몰하는 전술로 왜놈군대를 족치시고 조국해방을 성취하시였으며 아메리카의 신화를 처음으로 깨뜨려버리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사지판을 헤매이던 우리 겨레를 소생시켜주시고 끊어졌던 민족의 명맥을 이어주신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의 구세주로 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신문에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을 항일의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는 전설들이 널리 알려진데 대하여 회고한 남조선군 한 퇴역장성의 수기가 련재되여 파문을 일으켰다.

《〈김일성장군님은 총을 대단히 잘 쏘신다.〉, 〈장군님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는분이시다.〉,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는분이시다. 그분은 백두산을 주름잡아 달리면서 일본놈들을 족치신다.〉…

나는 전라남도 라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인 1930년대초 학교로 오가며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가슴달아오르게 들었다. 그러느라면 통학길이 언제나 즐겁고 신명났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오르고 들으면 들을수록 언제나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여기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천재적인 지략으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한없는 그리움의 정이 그대로 비껴있다.

서울의 한 책방에도 과거 《동양의 맹주》라고 으시대던 일제의 백만대군을 통쾌하게 족쳐버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신묘한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을 칭송하는 전설집형식의 소책자가 나타나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민중의 소리사》에서 발간한 《보신화》라는 제목의 이 전설집에는 《보신화》를 비롯하여 《길림감옥에 나타난 성인》, 《작탄과 하모니카》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시기 인민들속에서 전해지던 전설같은 이야기 20여편이 수록되여있다고 한다.

그 책을 읽어본 서울의 한 정치학교수는 《위대한 영웅에게는 수많은 전설이 따르는법》이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민중의 신뢰와 그리움이 어울려져 아름답게 꽃펴난 이러한 영웅전설들은 해방전부터 우리 겨레의 삭막한 가슴에 민족정기를 부어주는 샘이였고 민족의 명맥을 약동하게 하는 영구불멸의 서사시였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백두산의 장수로 명망높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의 〈축지법〉이야기를 누구나 신명나게 주고받군 하였으며 오늘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전하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소책자를 발간한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김일성장군은 초인간적인 무용과 천재적전략》으로 하여 《20세기의 신비적존재로 되시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일성장군부대의 근거지는 백두산일대였으며 그 신출귀몰한 유격전법은 일본관동군을 여지없이 참패시켰다. 일본군대는 오랜 세월 많은 희생을 내면서 〈토벌〉에 나섰지만 그들은 김일성장군부대를 〈토벌〉할수 없었다. 〈토벌〉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커가는 김일성장군부대, 실로 20세기의 수수께끼앞에 일본군대가 전률했을뿐아니라 세계의 군사가들이 그 얼마나 놀랐던가.

참으로 김일성장군은 《동양의 맹주》라고 으시대던 100만 관동군을 한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신 전설적영웅이시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다.》

남녘땅도처에서 끝없이 나도는 이러한 전설적이야기들은 절세의 위인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셔갈 온 겨레의 절절한 마음담아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김 현 철

대결야망을 드러낸 반민족적독설

지난 8월 15일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경축사》라는것을 하였다. 대내외정책과 통일문제 등 장황하게 엮어내려간 역도의 《경축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화자찬과 변명, 인민들에 대한 기만과 동족대결악담들로 일관되였다. 남조선 각계는 역도의 《경축사》에 대해 《무지를 드러낸 빈말치레》, 《정세악화를 가져오는 대결망언》으로 한결같이 비난규탄하였다. 한마디로 리명박역도의 《경축사》라는것은 극악한 반통일대결망발, 극히 불순한 반민족적독설이다.

지금 남조선에 조성된 극도의 통치위기와 북남관계파국에 대해 누구보다도 심각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리명박이다. 그러나 역도는 《경축사》라는데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책임을 극력 회피하고 도리여 남을 걸고들며 대결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리명박역도는 이번에도 함선침몰사건을 또다시 거들며 《도발》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모함하였을뿐아니라 그 무슨 《변화》를 운운하며 우리에게 감히 훈시하려 들었다. 이것은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적넉두리로서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고 도전이다.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진상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리명박역도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다시금 걸고든것은 정세를 대결의 극단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역도는 그것으로 미제와 야합하여 련일 벌려놓고있는 북침불장난소동에 그 어떤 타당성을 부여해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파렴치한 도발자, 외세의 전쟁하수인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폭로해줄뿐이다.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리명박역도가 《북핵포기》를 전제로 한 극히 반통일적인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방안》을 들고나오고 나중에는 뚱딴지같이 《통일세》를 준비하자는 용납 못할 악담을 늘어놓은것이다. 이것은 《비핵, 개방, 3 000》에 따른 범죄적인 《체제통일》야망의 발로이다.

이른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라는것은 과거에 로태우역도가 내놓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비핵, 개방, 3 000》에 짜맞춘것으로서 철저히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방안이다. 미국과 함께 동족을 해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도 《평화공동체》를 부르짖고 북남협력사업을 모조리 파탄시키고도 《경제공동체》를 운운하며 북남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민족공동체》를 떠드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리명박이 이제 와서 《공동체》니 뭐니 하고 아무리 너스레를 떨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역도가 《통일세》문제를 떠든것도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자주적평화통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리석게도 《북급변사태》를 념두에 두고 도이췰란드식 《체제통일》을 꾀하는 극히 불순한 망동이다.

통일은 돈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것이 곧 통일이다. 지금의 정세하에서 통일을 앞당기자면 돈을 모을것이 아니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착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이것을 외면하고 《통일세》를 운운하는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의 실현을 돈으로 뒤받침할 흉계를 드러낸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기일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이런 판국에 역도가 《통일세》문제를 들고나온것은 정세감각도 없고 돈이면 다된다는 정치무식쟁이, 모리간상배의 해괴한 망동으로서 내외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리명박이 운운한 《통일세》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동족대결과 전쟁준비, 《체제통일》야망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이며 전쟁세이다.

리명박역도는 이번 《경축사》라는것을 통하여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열어보려는 반역적흉심을 스스로 립증해보였다.

리명박역도패당은 겨레의 통일념원을 함부로 우롱하며 《통일세》망발을 늘어놓은데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최 철 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성명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가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하여 돌아가게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한상렬목사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공화국을 방문한것은 자기 한몸을 바쳐서라도 겨레의 가슴속에 6.15통일애국의 불길을 지펴주고 자주통일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결연한 의지의 발현이였다.

한상렬목사는 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 백두산과 금강산, 개성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6.15북측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각계층 인민들과 상봉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으로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였다.

한상렬목사의 공화국방문은 6.15공동선언을 고수, 리행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으로서 온 겨레가 그의 결단과 애국적소행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가 돌아오면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처형하겠다고 떠들어대면서 체포령장까지 발급해놓았으며 극우보수깡패들을 동원하여 한상렬목사를 모해하는 온갖 악담들을 해대는 비렬한 놀음에 매달리고있다.

지어 남조선적십자사를 내세워 한상렬목사의 귀환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는것과 같은 비인도주의적인 망언까지 서슴없이 내뱉고있다.

이것은 북남공동선언리행은 물론 민족의 화합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역적패당으로서의 정체를 다시한번 똑똑히 드러낸것으로 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남녘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에 대한 리명박패당의 부당한 파쑈탄압기도를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려는 종교인의 신앙심과 량심, 통일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돌이켜보면 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10년동안 얼마나 많은 남녘동포들이 6.15가 열어놓은 하늘길, 배길, 땅길을 따라 공화국을 방문하여 우리 인민들과 만나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었는가.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더불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기업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해내외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평화번영과 자주통일로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였다.

그러나 오늘 반통일보수집단의 악랄한 도전으로 겨레의 6.15통일대진군은 지체되고있으며 한상렬목사는 이 엄중한 사태를 묵과할수 없어 결연히 평양길에 나서게 되였다.

한상렬목사의 공화국방문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장거로서 탄압당해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으며 오히려 온 겨레의 뜨거운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다.

민족의 심판을 받고 처형되여야 할자는 분렬과 대결에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이다.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련합해상훈련에 이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외세와의 대규모적인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아 정세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아넣은것도 다름아닌 리명박패당이다.

리명박역도는 이번 《8.15경축사》라는것을 통하여 동족대결의 망발을 악랄하게 줴침으로써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이 공화국을 방문한 통일인사에게까지 파쑈탄압의 쇠고랑을 채우려는것은 매국이 애국을 란도질하는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은 한상렬목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를 체포하는 경우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이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면서 통일인사 한상렬목사를 부당하게 탄압하려는 괴뢰패당의 기도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리라고 믿는다.

주체99(2010)년 8월18일
평 양

조국해방 65돐기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 진행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가 13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보고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동포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가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조국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인민들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를 안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때에 조국해방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해있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고 그는 밝혔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공화국을 난공불락의 사회주의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지시였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보고회는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강력히 규탄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에 무자비한 대응의 철추를 내리자
각지 공장, 기업소들과 농장들에서 궐기모임 계속 진행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여러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련일 진행되고있다.

모임에 참가한 각계층 근로자들은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등의 구호들을 힘차게 부르며 우리 인민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분노와 증오,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원산화학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적들이 조선동서해에서 있은 해상전쟁연습소동에 이어 또다시 16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련합훈련을 벌려놓은데 대하여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쟁열에 들뜬 미치광이들을 징벌하는 심정으로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 질좋은 화학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고건원탄광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호전광들의 모험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의 위험성을 폭로하면서 우리 로동계급은 원쑤격멸의 의지로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이 떠드는 《천안》호침몰사건이 류례없는 날조소동, 모략소동으로 일관된 분별없는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의 첫단계라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련합훈련을 비롯한 전쟁연습소동은 본격적인 군사적침공을 노린 실제적인 행동단계로서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삼고 감행되는 호전적이며 로골적인 군사적도발행위이라고 까밝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이 극한계선에 이른 이 시각 무자비한 대응의 철추로 원쑤들이 저지른 죄악을 총결산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충만되여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침략의 무리들을 단매에 때려눕히고야말 멸적의 기상은 개천철길대 로동계급속에서도 세차게 분출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황당무계한 사기극을 날조하고 이를 구실로 벌려놓은 전쟁연습소동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으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류적, 반통일적범죄행위로 락인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만약 적들이 감히 선불질을 해온다면 세기를 이어 다져온 선군의 위력으로 침략자들에게 진짜전쟁맛을 똑똑히 보여줄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된 선군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안고 대고조진군속도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양덕군 은하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궐기모임들을 가지고 불타는 적개심으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릴 결의를 표명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강성대국에로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을 전쟁연습소동으로 어째보려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가소로운 전쟁미치광이, 하수인이며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쑤이라고 말하였다.

련이어 감행되고있는 대규모전쟁연습소동은 《핵없는 세계》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떠들어대는 적들의 량면술책과 기만성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을뿐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호전광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올해에 반드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궐기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핵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며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혁명적열정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과 괴뢰패당은 우리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았다.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습에는 미군만해도 지난 시기에 비해 3배나 많은 3만여명, 괴뢰군 5만 6 000여명 그리고 괴뢰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4 000여개의 기관에서 40만여명의 민간인들이 동원되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전쟁연습이 시작된 첫날 《청와대》에서 그 무슨 《을지안전보장회의》와 《을지국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괴뢰군의 전시대비태세와 괴뢰행정부의 전시전환체제를 점검하는 등 광기를 부렸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한데 이어 또다시 남조선전지역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은 그들이 전쟁책동에 얼마나 미쳐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미국과 괴뢰들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격화시켜 핵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는 극히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이를 온 민족과 함께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적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고있지만 그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얼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작전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최신전쟁장비와 병력이 동원되고 실탄과 실동이 결합된 핵시험전쟁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북침전쟁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속에 또다시 민간인까지 총동원하여 남조선전역에서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을 벌리고있는것은 그들의 북침전쟁광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에 의해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기가 조성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에서 날과 날, 달과 달을 이어가며 전쟁연습소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것》이라느니, 《평화를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넉두리를 늘어놓고있다.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해 온 남조선땅을 총포성이 터지는 전쟁마당으로 만들어놓으면서 《전쟁억제》와 《평화》를 줴치는것이야말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이번 전쟁연습은 괴뢰역도가 떠벌인 그 무슨 《평화통일》이니, 《공동체》니 뭐니 하는것이 다 헛나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패당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대결과 전쟁뿐이라는것이 더욱더 드러났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감히 가소롭게도 힘으로 그 누구를 압박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 짓거리이다.

우리는 호전광들에게 북침전쟁연습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은 자멸만을 초래할뿐이라는것을 똑똑히 가르쳐줄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릴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멸적의 의지는 천만배로 강해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과 전쟁책동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것이며 이미 천명한대로 예측할수 없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원쑤들의 아성에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제가 지른 불에 타죽게 될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주체99(2010)년 8월18일
평 양

군사적도발책동을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10일 론평을 발표하여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단죄규탄하였다.

론평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감행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리명박《정부》가 또다시 미핵항공모함을 조선서해에 끌어들여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 년말까지 련이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이것은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다를바 없는 위험천만 한 망동이라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민중이 바라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데 대해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 당국이 모든 전쟁연습계획들을 철회할것을 론평은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북침전쟁소동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정권》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조선반도를 긴장과 대결상태로 몰아넣었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남북대결을 더욱 조장시킴으로써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미국과 리명박《정부》가 그 무슨 《보복》에 대해 떠들면서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대결과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고 하면서 성명은 호전세력이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로동자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영국단체들 성명발표

영국단체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8일 성명에서 미제와 남조선파쑈괴뢰호전광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며 모독이라고 단죄하였다.

조선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위험계선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모든 조선의 벗들과 진보적인민들이 반제투쟁의 전초선에 있으며 미제의 대포와 핵무기가 매일과 같이 노리고있는 조선을 적극 지지옹호할것을 호소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는 13일 공동성명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은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벌린 해상군사연습의 련속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으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 전쟁연습은 평화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미제가 조선반도 전지역에서 식민지통치체계를 확립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저들의 패권을 확보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백전로장의 담력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이 때리면 맞받아 때리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원칙적립장입니다.》

지금 조선반도에 그 후과를 예측할수 없는 전쟁위험이 또다시 배회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국토가 인공적으로 분렬된 후 우리 나라에는 자주 이런 상황이 조성되여왔다. 이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1950년대에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벌렸다.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그 이후의 년대들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벌린 반미대결전이 전쟁으로 이어질번 한 일들이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다. 미제와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우리 공화국에 끊임없이 전쟁을 강요하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언제나 명백하였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응징》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

우리 공화국은 미제가 강요하는 전쟁위험앞에서 언제 한번 뒤걸음친적이 없었다. 뒤걸음치는것 그자체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 력사는 침략세력의 군사적위협과 강박앞에서 겁을 먹고 물러서는 나라는 언제나 혹심한 전쟁의 참화를 입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부정의의 전쟁을 강요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전쟁을 도발한다면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에 서슴없이 뛰여들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반미대결전을 벌리고있다. 그것은 자주권수호가 나라의 공고한 평화 그리고 우리 인민의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과 잇닿아있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가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언제나 강경립장을 견지할수 있은것은 세계가 그토록 우러르는 백전로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주석으로 모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조선반도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속에서 전쟁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브라질 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과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와 압력에 대처하여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전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였다는데 대해 언급하시고 이제라도 미국이 회담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며 당시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긴장해소방도에 대하여 명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미국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단호히 맞서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때리면 맞받아 때릴것이다!

이것은 곧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발현이였다. 정의와 평화를 그토록 사랑하신분이시였기에, 부정의와 전쟁을 그토록 증오하신분이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런 담대한 결단을 서슴없이 내리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가 초강경으로 나간다면 미제가 함부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지 못한다는것을 환히 내다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이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기껏해야 강권을 발동하여 경제제재조치나 취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제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우리는 겁날것이 없다고 배심있게 말씀하시였다.

그후 정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흘러갔다. 미국은 조미회담장에 끌려나왔으며 조미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나라와의 합의를 뒤집어엎고 조미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리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면서 국제기구들까지 발동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소동을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런 시기였던 주체83(1994)년 4월 16일 미국 《워싱톤 타임스》기자단을 만나주시였다. 그리고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랭전이 종식된 오늘에 와서도 힘으로 남을 위협하는것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평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려든다면 우리도 자위권을 행사하여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수 없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핵문제해결에 대한 우리 나라의 립장에 대하여서도 명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핵문제해결의 첫째 원칙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보장되고 서로의 리해가 이루어지면 핵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는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국 《워싱톤 타임스》기자단이 김일성주석께서 미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고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을 바라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것이 아니라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평화와 전쟁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이처럼 명명백백하고 투철하였다.

우리의 원칙적이고 확고부동한 립장앞에서 적들은 쩔쩔 매며 감히 우리 공화국을 어쩌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며 백전로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조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초강경자세를 견지하면서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가고있다.

어제도 그러했던것처럼 오늘도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명백하다.

우리는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불은 불로 다스릴것이다.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막강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되여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보다 강화될것이며 따라서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도 더욱더 강경해질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세력들은 지금 우리 공화국가까이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다놓고 전례없는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으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위협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명백히 천명하였다. 만약 적들이 감히 전쟁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핵억제력에 기초한 무자비한 보복성전을 벌릴것이다.

백승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적들의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벌리게 될 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전쟁으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수

선군령도는 모든 승리의 근본요인

여러 나라 신문, 잡지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신문과 팔레스티나잡지가 특집하였다.

민주꽁고신문 《라 쁘로스뻬리떼》 6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기념글을 옹근 한면에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는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승리를 떨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는 50년전인 1960년 8월 25일부터 시작되였다.

그이께서 바로 력사의 이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군사분야에 대한 지도를 먼저 시작하시였다는 사실에 류의해야 한다.

말그대로 선군령도인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령도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이 강성대국을 향하여 비약하는 경이적인 현실을 안아오시였다.

또한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팔레스티나잡지 《일랄아맘》 8월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환호하는 군인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나라를 난공불락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담화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가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신 50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것은 조선의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세계자주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선군사상은 날이 갈수록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필승불패의 보루로 되였으며 미제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선군의 위력으로 다져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선군정치 만세!

본사기자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친선단결의 강화

라오스신문 사설 게재

라오스인민혁명당기관지 《빠싸손》 7월 27일부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 전통적인 친선과 전반적인 협조관계 발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1974년 6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된 후 지난 30여년간 두 나라는 물심량면으로 호상원조하고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지지협력하였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에 여러 분야에서의 래왕과 협조가 활발히 진행되여온데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였다.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관심과 지도밑에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전반적협조관계는 계속 발전하고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급변하는 오늘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의 강화는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16일부터 전례없는 호전적목적을 띤 사상 최대규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동해와 서해에서 화약내질은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린데 이어 또다시 남조선전역에서 종합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다.

이 전쟁연습소동들은 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2010년 7월 9일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고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채 계속 감행되고있는 군사적도발행위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전쟁광신자들은 무분별하게도 제 무덤을 파고있다.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여있으며 자기의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갖추고있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더욱 절감하게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긴장격화에도 림계점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며 정세폭발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슬람교나라들사이의 협조를 호소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12일 까타르추장 쉐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타니와의 전화대화에서 이슬람교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역의 정세와 조건은 나라들사이에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우호적관계를 유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지역협조를 강화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한편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9일 한 외교석상에서 이슬람교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면서 그것이 모든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리익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식민주의자들의 간섭책동으로 이슬람교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였지만 오늘 이 나라들은 각성되였으며 서로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책동을 단죄

▲아랍국가련맹 부총서기가 11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평화과정을 파탄에로 몰아가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말로는 평화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실지로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와 레바논남부지역에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으며 꾸드스의 《유태화》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지역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결코 도움이 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유태인《정착촌》건설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은 평화과정을 말살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매여달리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규탄하였다.

▲팔레스티나의 인권단체책임자가 8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불법거주》라는 구실밑에 꾸드스에서 살고있는 2만여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평양산원

영국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4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평양산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산원은 조선녀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 창립후 지난 30년동안 여기에서는 71만여명의 어린이가 태여났다.

은혜로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조선녀성들은 평양산원을 친정집이라고 부르고있다.

평양산원에서는 근 400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 태여났으며 600여쌍의 세쌍둥이들을 키워냈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갖춘 구급차들이 나라의 곳곳에서 다태임신부들을 실어와 병원에서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나라의 북단과 산간오지에 직승기까지 날아가 산모와 아이들을 구원하였다.

평양산원에서는 최신식설비를 그쯘히 갖추고 산모와 어린이들의 건강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47년 7월 해방된 조선에서 첫 세쌍둥이가 태여났을때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그들의 양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평양산원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원의 홀에 보석을 깔아주도록 하시고 백수십차에 걸쳐 많은 산꿀과 보약재들, 최신의료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산원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여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평양산원은 조선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인간사랑의 정화이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미래의 역군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본사기자

미국의 패권주의와 포함주의, 일방주의를 비난

중국 《해방군보》 12일부가 미국의 패권주의와 포함주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최근 미국방성 대변인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가 조선서해해상에서 벌어지게 될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게 된다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신문은 그것은 도발로서 미국이 여전히 패권주의와 포함주의, 일방주의에 매여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신문은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상에서 내 말이면 다다. 내가 가고싶으면 가고 다른 사람은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이고 포함주의는 《말을 안 들으면 그에게 힘자랑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주먹맛을 보여주겠다.》이며 일방주의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며 모든것은 미국의 리익과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것이라고 까밝혔다.

중국은 그 어느 나라와도 적대적으로 지내는것을 원치 않지만 누구든지 중국의 립장과 핵심리익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포함이 아니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미시위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미강점군이 와르다크주의 한 마을에 쳐들어가 3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주민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도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미군의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연피해

◎중국 내몽골자치구 커스커텅기에서 30년래 처음보는 가물이 계속되여 피해를 입고있다. 가물로 12일현재 103만 8 800무의 밭에 심은 농작물과 2 272만무의 방목용 풀밭이 못쓰게 되였다. 총피해자수는 21만명에 달한다.

한편 감숙성 롱남시에서 11일에 내린 무더기비로 9명이 사망하고 9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15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1만여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꾸바에서 올해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 1월부터 5월까지만도 전국적으로 산불로 5 711ha의 산림이 불타버렸다.

산불로 인한 경제적손실액은 820만US$에 달하였다. 나라에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9일 열대성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초속 13m의 바람이 불면서 2시간동안에 약 50㎜의 비가 내려 도시의 여러 구역들이 물에 잠겼으며 자동차운행이 마비되였다. 피해지역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브라질의 싼 빠울로시 동부지역에서 13일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 화재로 2명이 부상을 입고 10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시에라레온의 프리타운에서 9일 무더기비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산사태로 1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여러채의 살림집들이 무너졌다.

【조선중앙통신】

파키스탄에서 큰물피해

막대한 국가채무

이딸리아에서 올해 6월에 국가채무액이 1조 8 219억 8 200만€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말에 비해 606억 7 700만€ 더 많은것이다. 13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무역적자, 재정위기

미국에서 올해 6월에 무역적자가 그 전달에 비해 18.8% 늘어나 499억US$에 달하였다. 11일 미상무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경제침체의 후과로 재정형편이 계속 악화되고있다.

최근 미국정부는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7월에 련방에 산적자가 1 650억US$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청년실업자수

세계적으로 지난해 청년실업자수가 8 07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2007년에 비해 780만명 더 늘어난것이다.

11일 국제로동기구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도덕적으로 썩고 타락한 미제침략군

얼마전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지명자로 뽑힌 래리 파머가 미국회 상원청문회에서 베네수엘라군의 《저렬한 도덕품성》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하며 비난하였다고 한다.

이런것을 두고 똥묻은 개 겨묻은 개를 흉본다고 한다.

까놓고말하여 미국은 다른 나라 군대의 그 무슨 《도덕품성》에 대해 말할 처지가 못된다. 그것은 미군이 이 세상 군대치고 가장 저렬한 도덕품성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언제인가 도이췰란드의 한 잡지가 전한데 의하면 미국의 한 비행사는 《우리의 도덕적수준은 령상태에 접근하였다.》라고 실토하였다.

미군은 지배층의 리익과 요구를 위한 침략도구이며 돈에 팔리고 강권에 못 이겨 끌려나온 고용군이다. 정의와 진보를 지향하는 인민들을 반대하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가장 반동적인 침략군대, 악랄한 살인귀집단이 미제침략군이다.

이와 같은 반동적사명과 침략적성격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은 부패타락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군이 극도의 염전사상에 물젖어있는데서 드러나고있다.

미군은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덜기 위해 마약을 먹거나 마약주사를 맞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군장교와 병사들 5명중 1명이 마약중독자라고 한다. 더욱 한심한것은 근무중에도 마약을 사용하고있는 병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군내에서의 마약사용은 극복할수 없는 만성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극도의 염전사상에 물젖어있는 미군속에서는 전투기피자, 도주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전투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기회를 엿보고있다. 제 허벅다리나 팔에 몰래 총을 쏘아 불구의 몸으로 제대되는가 하면 자총하여 목숨까지 끊는 자들이 드문하다.

미군속에서는 도망병들도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군부대들에서의 탈영자수는 약 4만명에 달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참가한 미제침략군속에서 술한 도망병이 나타났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에 급해맞은 미국반동지배층은 《딸라를 더 많이 주겠다》, 《공로를 세우면 집에 인차 보내준다》는따위의 회유기만으로 침략군을 전쟁터로 내몰았다고 한다.

미제침략군의 부패성은 또한 도적질과 략탈, 살인행위에서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주둔지인민들의 재산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략탈하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저들의 군수품마저 가로채서 제배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미제침략군은 탄약은 물론이고 무기까지 훔쳐내여 팔아먹고있다. 이와 같은 사건관련자는 기지에서 근무하는 성원들이다. 미군무기고들에서 해마다 수많은 무기들이 잃어지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제침략군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절도를 비롯한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이라크전쟁시기 대통령궁전의 어느 한 방에 쳐들어간 2명의 미군병사중 한명은 벽에 걸려있는 미술작품들을 떼내는 등 값진 물품들에 대한 도적질부터 하였다. 그동안 다른 한 미군병사는 문어구에서 밖으로 총구를 겨누고 도적질에 여념이 없는 동료를 지켜주었다. 이라크의 한 은행에서 미군의 감시하에 돈궤짝압수와 운반이 진행되던 도중 몇개가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 역시 도적질에 인이 박힌 미군병사들의 작간이였다는것이 후에 밝혀졌다.

그뿐이 아니다. 이라크를 강점한 미군은 이라크인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학대와 멸시, 고문, 강간, 살인 등 흉악한 인권유린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남성수감자들에게 녀성의 속옷을 입혀놓고 희롱하거나 온몸을 칼로 찔러놓고는 《상처를 꿰매준다.》고 하면서 일부러 고통을 주고 녀성간수들은 남성수감자들을 벌거벗기고 롱락하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지어 미강점군은 이라크인수감자들을 살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2006년 5월 이라크의 티크리트에서 있은 재판에서 한 미강점군병사는 3명의 자기 동료가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97㎞ 떨어진 곳에서 3명의 이라크인수감자들을 묶어놓고 총살하였다고 증언하였었다.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이는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 전쟁은 대단히 즐겁고 유쾌한 놀음이다. 나는 총포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좋다.》

이라크강점 미해병대 제1사단 기지장이였던 제임스 매티스가 한 이 말속에는 피를 즐기는 인간도살자, 인두겁을 쓴 미제침략군의 진면모가 함축되여있다.

미제침략군은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다.

미국에서 발행된 《아메리카의 병사》라는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미군부대는 술집을 먼저 점령하기 위하여 그리고 누가 더 많은 녀자를 강탈하는가 하는 경쟁으로 앞을 다투어 돌진한다.》

이 책에는 《술과 녀자》, 이것이 미제침략군의 온 정신을 지배하고있으며 《부화방탕》, 이것이 그들의 《생활철학》이라고 씌여있다.

미제침략군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오늘 남조선과 일본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경기도 평택시 어느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여 돌아치던 미공군소속 사병이 한 녀성에게 다짜고짜 달려들어 살인흉기로 10여군데나 찔러 그를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빚어졌다. 미군범죄자는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칼부림을 하는 야수적만행을 저질렀다. 남조선에서는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패륜패덕에 물젖은 미제침략군이 이처럼 무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폭력, 강간, 강도질을 무시로 일삼고있다.

미제침략군이 도덕적으로 썩을대로 썩고 타락할대로 타락한 추물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판에 미국이 그 누구의 《도덕품성》에 대해 말할 체면이 있는가.

미국지배층은 차라리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손

ㄱ-01148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